

封建制로부터 資本主義로의 移行

——韓國農業構造의 歷史的 分析을 위한 方法論의 考察——

朱 宗 桓

東國大學校 農業經濟學科 教授

目 次

- I. 序 言
- II. 「封建制로 부터 資本主義로의 移行」論爭과 그 成果
- III. 「前期的 資本」과 「近代的 資本」
- IV. 資本主義의 構造의 特質과 概念
- V. 農民經濟와 領主經濟의 對抗과 資本主義發展의 類型的 差異

I. 序 言

各國의 封建制로 부터 資本主義로의 移行過程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때 크게 보아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類型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農民層과 封建의 支配層과의 對立・抗爭의 과정에서 農民層이 封建의 支配體制를 붕괴시키는 가운데 農民層의 主導下에 貨幣經濟의 발전이 이루어졌을 경우이다. 이때에는 農民經濟의 廣汎한 發展을 바탕으로 한 局地的 市場圈의 成立에 의한 農民層의 自生的인 資本主義의 兩極分解의 과정이急速히 進行되어 封建制로 부터 資本主義로의 移行過程이 圓滑하게 그리고 革命的으로 遂行되었다. 이와 같은 類型은 英國, 佛蘭西 및 美國에서 볼 수 있는 類型으로서 그것은 말하자면 「밑으로부터 von unten」의 資本主義化的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둘째는 封建의 支配層이 農民層의 經濟의 向上的 可能性을 억누르는 가운데 貨幣經濟의 발전을 위해서 부터 von oben 把握하여 農民層 主導下의 貨幣經濟의 발전의 가능성과 「利潤의 싹」의 成長의 可能性을 抹殺하고, 封建의 支配層의 利益을 最大限 溫存시키는 가운데 資本主義와의 妥協의 產物으로써 거기에 再編成된 封建制로서의 半封建의 半隸農制의 支配體制를 樹立하여 간 類型이다. 이와 같은 類型은 「프러시아」, 日本 및 韓國의 封建制로 부터 資本主義로의 移行過程에서 볼 수 있는 類型이며 이 類型下에서는 半封建의=半隸農制의 經濟外的 支配의 體制가 絕對主義의(獨逸과 日本의 경우) 또는 植民主義的(韓國의 경우) 國家權力을 바탕으로 한 資本의 再生産機構의 基抵로서의 農業分野를 長期間 支配하게 됨으로써 人口의 絕對多數를 차지하는 農民層의 中世紀的 貧困이 나아가서

4 經濟學研究

는 非農業部門의 낮은 賃金水準을 결과하고 그것이 全國民의 規模의 貧困의 惡循環을 가져 오게 되어 이로 말미암아 國內市場의 狹少化는 그가 지닌 經濟의 諸矛盾의 國內的 解消의 길을 막아, 그 矛盾의 解決策을 前期的 性格의 官僚·金融獨占資本의 領導下 經濟의 軍事化와 對外侵略 내지 무리한 海外市場 確保에 구할 수 밖에 없는 矛盾의 惡循環의 體制를 수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各圖이 이러한 두가지 類型 가운데 어떠한 類型을 歷史具體的으로 取하게 되는가 하는 점은 封建制로 부터 資本主義로의 移行過程에 있어서 農民層의 經濟가 封建支配層의 經濟를 壓倒하여 農民層 主導下에 貨幣經濟가 발전하여 가느냐 아니면 封建支配層의 經濟가 農民層의 經濟를 위에서 부터 把握하여 封建的 支配體制가 새로이 再編成된 體制下에서 農民經濟의 自生的인 발전을 억눌러 버리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本論文은 위와 같은 理論的 假說을 檢證하기 위한 準備過程으로서 ① 第二次世界大戰後 世界的 規模로 전개된 封建制로 부터 資本制로의 移行過程에 관한 論爭의 成果를 再評價하고 ② 거기에서 얻어진 成果에 立脚하여 封建制로 부터 資本主義로의 移行過程에서 나타나는 類型을 檢出하기 위한 經濟學的 方法論으로써 「地代」範疇와 「利潤」範疇, 「前期的 資本」과 「近代的 資本」의 範疇를 明白하게 하고, ③ 그러한 方法論의 見地에서 最近年에 韓國의 封建制로 부터 資本主義로의 移行過程에 관하여 발표된 金容燮教授와 金俊輔教授의 研究內容을 批判的으로 檢討하려고 하는 것이다.

II. 「封建制로 부터 資本主義로의 移行」論爭과 그 成果

封建制로부터 資本主義로의 移行이 어떠한 역사적 系譜下에서 이루어 졌느냐에 관하여는 특히 제2차대전 이후 국제적 규모로 학계에 치열한 論爭을 불러 일으키며 있으며 현재도 이 論爭은 사실상 계속되고 있다. 제2차대전 이후의 이 국제적 論爭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은 1946년에 발간된 영국 「캠부릿지」대학의 Maurice Dobb, 「資本主義 發展의 研究」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¹⁾에 대해 Paul M. Sweezy가 1950年 "Science and soicety"에서 비판을 가하고 M. Dobb이 同一誌上에서 이에대한 反批判²⁾을 가한데서 비롯되었다.

이 論爭은 日本에 飛火하여 東京大學의 高橋幸八郎教授의 비판³⁾이提起되었고 이것이 英譯되어 다시금 "Science & Society"에 掲載됨에 따라⁴⁾ Dobb와 Sweezy의 反批判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으며⁵⁾, 더 나아가서는 영국 University of Birmingham 역사학 교수 Rodney H. Hilton과 Oxford대학 역사학 교수 Christopher Hill이 이 論爭에 참가하였다⁶⁾. 이들

- 1) Maurice Dobb,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London, [京都大學 近代史研究會譯「資本主義發展의 研究」, 2分冊, 岩波書店, 東京, 1954—55]
- 2) Paul, M Sweezy, The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Science & Society, Vol, XIV, No. 2, Spring 1950, pp. 134—57; Maurice Dobb, Reply, Ibid, pp.157—67.
- 3) 高橋幸八郎, 「封建制から 資本主義への移行—スウィージー·ドップ兩氏の 論爭に寄せて—」, 『經濟研究』 2—2, 東京, 1951, pp.128—46.
- 4) H.K. Takahashi, The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A Contribution to the Sweezy-Dobb Controversy, Science & Society, Vol, XVI, No. 4, Fall 1952, pp.313—45:
- 5) M. Dobb & P.M. Sweezy, Comment on Professor H.K. Takahashi's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Science and Society, Vol, XVII, No. 2, Spring 1953, pp.155—164, [本田創造譯, 「經濟評論」 4—2, 1953]
- 6) Rodney H. Hill & Christopher Hill, The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Science & Society, Vol. XVII, No. 4, Fall 1953, pp. 340—351.

一連의 論爭들은 Maurice Dobb에 의하여 한 묶음의 小冊子로 되어 「런던」과 「뉴욕」에서 出版되었다⁷⁾.

이 論爭의 보다 자세한 내용과 문제점에 관하여는 後述하겠거니와 이 「論爭」에 참가한 範圍는 가히 全世界的이라고 할 만큼 廣大하였다.

우선 日本에 있어서는 이 「論爭」의 문제점이 日本經濟의 역사적 발전단계 究明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林健太郎, 増田四郎, 河野健二, 羽鳥卓也, 堀江英一, 藤原浩, 宇野弘藏 諸氏가 각기 자기 나름의 見解를 발표하였다⁸⁾.

歐羅巴에서는 伊太利의 Guiliano Proccaci⁹⁾, Austria의 Rudolph Schlesinger¹⁰⁾, 佛蘭西의 G. Lefebre, 및 A. Soboul¹¹⁾, 「폴랜드」의 歷史家 Marian Malowist¹²⁾, 소련의 英國經濟史家 V.M. Lavrovsky¹³⁾, 「체코슬로바키아」의 A. Klima教授¹⁴⁾, 등이 이 論爭에 참가하였다.

Maurice Dobb은 이 論爭의 역사적 의의에 관하여 그의 'A Symposium' 序文에서 이 論爭이 단순한 학문상의 문제가 아니라 世界의 많은 부분에서는(즉 많은 후진국과 중진국에서는) 현실적인 정치문제이며 封建遺制와 資本主義와의 관계는 『당면한 歷史形成의 문제 urgent matters of history-in-the-making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¹⁵⁾.

이 論爭의 中心點은 英國革命의 段階과 性格에 관한 것이었는데, 특히 論爭의 焦點이 되었던 것은 『封建制가 언제 또 어떻게 終末을 告하였다』고 해야 옳은가, 이 경우 「商人資本」 'Merchant Capital'의 특징과 성격 및 農民層의 地位는 어떠하였는가의 문제¹⁶⁾였다.

여기서 Paul Sweezy의 견해를 들어 보면 그는 封建制度는 그 自體의 內部矛盾에 의해서 解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無緣한 外來的인 힘(External force)에 의해서만 해체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外來的인 힘은 商業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行商의 段階의 商業이나 局地的交換의 그것이 아니라 遠隔地商業 long distance trade이 西歐의 封建制를 해체시키고 資本主義生産을 창조하는 힘이었다고 본다. 그는 『西歐의 封建制의 발전의 배후

7) The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A Symposium by P.M. Sweezy, Maurice Dobb, H. K. Takahashi, Rodney Hilton and Christopher Hill, 1954, (Fore Publications Ltd., 28-29 Soutampton St, London W.C. 2 & New York)

8) 「思想」, No. 325, 岩波書店, 東京, 1951.

9) Guiliano Proccaci, Dal feudalismo al capitalismo: Una disussione storica, *Società* Anno XI, No. 1, feb., 1955, pp.123-38

10) Rudolph Schlesinger, Vom Feudalismus Zum Kapitalismus, *Arbeit und Wirtschaft*, 10 Jg., Nr. 2, Feb, 1956, ss.54-7

11) Georges Lefebre-Guiliano Procecci.-Albert Soboul, Une discussion historique. Du féodalisme au capitalisme, *La Pensée*. No.65, 1956, pp.10-32

12) Marian Malowist, 「封建制から資本主義への移行」『土地制度史學』 I-1, 1958, pp.58~62; 〔山岡亮一, 木原正雄(譯編)「封建社會の基本法則」, 有斐閣, 東京, 1956.

13) V.M. Lavrovsky, 「原始的蓄積に關する若干の論爭問題」, 『土地制度史學』, No.5, 1959, pp.54~61

14) Arnost Klima. Josef Macurek, La question de la transition du féodalisme au capitalisme en Europe centrale (16^e-18^e siècles), XI^e Congrès international des sciences historiques, Rapports IV, Stockholm, 1960, pp.84~105; A Klima, Zur Frage des Übergangs vom Feudalismus zum Kapitalismus in der Industrie-produktion in Mittel Europa, *Probleme der Ökonomie und Politik in den Beziehungen zwischen Ost-und Westeuropa vom 17. Jahrhundert bis zur Gegenwart*, hrsg. V.K. Obermann, Berlin, 1960, pp.103~124.

15) M. Dobb, A Symposium, Forword.

16) M. Dobb, A symposium, Forword.

에 있는 基動力 prime mover은 무엇이었는가』라고 自問하면서 자본주의의 경우에는 『그 基動力은……資本의 蓄積이다』고 명백하게 답할수 있으나 『封建體制는 아무런 內部的인 基動力을 內包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로 발전을 일으킨 경우에는 그 推進力은 이 體制의 外部에 求해져야 한다』. 즉 그것은 商業 특히 遠隔地商業이다 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그는 『商品生産과 封建制度는 서로 排他的인 개념이다』라는 입장에서 자본주의의 특질은 『市場을 위한 生産』인데 대하여 『封建制의 결정적인 특질은 그것이 使用價值를 위한 生産체계』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같은 Paul Sweezy의 견해를 研究史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견해가 독일 歷史學派의 Bruno Hildebrand¹⁷⁾ 및 Lujo Brentano¹⁸⁾의 견해를 踏襲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中 Bruno Hildebrand는 資本主義發展의 基動力 내지 推進力을 貨幣經濟 내지 商業의 발전에 구하는 견해를 研究史上 처음으로 圖式化하여 經濟의 보편적인 발전단계로 제시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가 제시한 自然經濟→貨幣經濟→信用經濟라는 세개의 발전단계 가운데서 최후의 信用經濟의 단계는 그후 점차 捨象되고 自然經濟→貨幣經濟, 더 간단하게는 貨幣經濟의 發達이 資本主義成立의 基動力이라는 說明原理가 學界에 通用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見解를 가장 명백하게 前面에 내세웠을 뿐 아니라 學界에 대하여 매우 幅넓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前述한 新歷史學派의 巨匠 Lujo Brentano였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世界史上 어느 時代를 보나 예외없이 自然經濟로 부터 貨幣經濟로의 移行의 경향을 엿볼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어느 時代에 있어서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업과 금융업이 번영하여 이것을 기반으로 이윤이 추구되었으므로 이것이 곧 資本主義의 발전이다(利潤追求=資本主義). 그러나 옛날에는 利潤追求=資本主義는 여러가지의 제도와 윤리의식의 제약으로 사회의 전면, 특히 생산의 部面을 파악하여 이것을 商業化 할 수가 없었다. 歐羅巴에서는 中世末期 以降, 近代에 들어서서 겨우 人間의 營利追求 活動에 의한 經濟의 商業化가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그 결과 비로소 자본주의는 사회의 생산적 기초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利潤追求, 貨幣經濟, 商業의 發達이 자유로이 發現하는 社會, 이것이 다름아닌 近代資本主義라고 그는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과거에 歷史學派 특히 新歷史學派에 거의 공통된 것이 있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도 各國의 歷史學界에 널리, 뿌리깊게 보급되고 있다.

그런데 資本主義의 發展經路에 관한 이 Brentano 및 Sweezy의 立場은 貨幣經濟의 發展 내지 商業의 발전이 자본주의의 확립을 가져왔다고 본다는 점에서 간단하게 「商業資本의 產業資本으로의 轉化로써 資本主義의 발달을 설명하려는 立場」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이 立場은 工業經營形態나 農業經營形態의 資本主義의 發展에 관해서도 商業資本의 역할을 거의 절대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우선 工業經營形態에 관하여 말하자면 近代資本主義社會를 지배하는 產業資本의 歷史的系譜는 商業資本→客主制의 商業資本→工場制手工業(Manufacture) 내지 產業資本이라는 圖式으로 묶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Karl Bueher는 工業經營形態 그 자체에 관하여 家內勞動→日傭勞動→手工業→

17) Bruno Hildebrand, Naturwirtschaft, Geldwirtschaft und Kreditwirtschaft, *Jahrbuch für Nationalökonomie und Statistik*, II, 1864.

18) Lujo Brentano, Der wirtschaftende Mensch in der Geschichte, Gesammelte Reden und Aufsätze, Leipzig, 1923. [田中善治郎(一部譯), 『近世資本主義の起源』, 有斐閣, 1941.] ; ders., Eine Geschicht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Englands, 3 Bde. Jena, 1927~29.

客主制의手工業→工場工業이라는 發展圖式으로 유명하다¹⁹⁾.

그리고 한편 農業經營形態에 관하여도 商業資本이 전통적으로 自然經濟에 입각하고 있는 封建農村에 外部로부터(都市로부터) 貨幣經濟와 商業이 침투해 들어감에 따라서 封建農村은 解體되어 農產物을 商品으로 販賣하기 위해서 그리고 營利를 目的으로 하여 市場目的의 生産을 하는 經濟로 改編되었고 이것이 바로 資本主義의 農業經營의 形態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같은 견해는 農業의 商業化가 곧 農業의 資本主義化라고 보는 견해로써 오늘날에 있어서도 農業經濟學界에서 매우 보편적인 통용력을 가지고 있는 견해이다. 韓國의 農業經濟學界에서도 많은 學者가 이 견해에 追從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는 견해이다²⁰⁾.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Brentano-Sweezy적 견해가 현재 韓國經濟學界의 主流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追從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崔虎鎮教授의 「近代朝鮮經濟史」로부터 개시된 一連의 研究도 그러한 見解에 입각하고 있다²¹⁾. 金俊輔教授의 韓國資本主義의 性格規定을 위한 一聯의 精力的인 연구²²⁾도 후에보는 바와 같이 封建의 性格의 「地代」範疇가 貨幣經濟의 農村浸透에 따라 營利主義的地主를 발생케하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利潤」範疇의 성립을 가져왔다는 方法論的立場을 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역시 앞서 말한 Brentano-Sweezy적 견해와 步調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商業=貨幣經濟의 발달이 資本主義發達의 基動力이나 아니냐 하는 문제는 M. Dobb도 지적한 바와같이 단순한 학문상의 문제가 아니라 韓國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한 商業의 隆盛 내지 商品流通關係의 발전이 資本主義로 이끌어 가는 基動力이라고 한다면 韓國에 있어서의 資本主義의 성립도 그러한 商品貨幣經濟의 발전의 程度와 이에 입각하는 營利主義精神의 발전정도에 의해서 規制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한 기준에서 보느냐 그렇지 않은 다른 角度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韓國의 資本主義의 歷史的 發展段階와 더 나아가서는 그 歷史的 性格規定이 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現實的인 對應方法도 달라 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資本主義의 발달의 基本적 基動力을 商業=貨幣經濟 속에서 구하려고 하는 上述한 Brentano-Sweezy적 견해에 대립되는 Dobb-Takaheshashi적 견해를 요약해 보기로 한다.

이들은 資本主義의 발달을 商業의 발달이라는 封建社會의 外部로부터의 衝擊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 아니라 封建社會 그 자체의 內部的 解體過程 안에서 형성되는 中産의 生産者層(小商品生産者로서의 手工業者와 農民)發展과 그 資本家와 勞動者라는 두개의 階級으로의 分解過程속에서 資本主義의 基本的 系譜와 그 起動力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에 立脚하고 있는 사람을 學說史的으로 거슬러올 라가면 우선 Max Weber²³⁾를 들 수 있고

19) Karl Bücher, Die Entstehung der Volkswirtschaft, Vorträge und Aufsätze, 2 Bde., 1893.

20) 例컨대 朴基赫, 「新農業經濟論」, 改訂版, 博英社, 서울, 1971. 『「商品化率」……이 農業生産에 있어서 資本制化的 指標로 이용되는 때가 많다.』 p.118.

10. Aufl. Tübingen, 1922. [權田保之助譯, 『國民經濟の成立』(但第一卷譯). 增補改訂版. 栗田書店. 東京. 1942.]

21) 崔虎鎮, 『近代朝鮮經濟史』, 慶應書房, 東京, 1942.

22) 金俊輔, 「植民地開發과 地代의 利潤化機構」, 高麗大學校政經大學, 『社會科學論集』, 서울, 1973.

23) Max Weber, Wirtschaftsgeschichte, Abriss der universalen Sozial- und Wirtschaftsgeschichte, aus den nachgelassenen Vorlesungen, hrsg. von S. Hellmann und M. Palyi, München u. Leipzig, 1923. [黑正巖·青山秀夫譯, 『一般社會經濟史要論』, 岩波書店, 東京, 上卷, 1954, 下卷 1955]

또 어떤 點에서는 Henri Pirenne²⁴⁾, E.A. Kosminsky²⁵⁾ 등을 研究史上 손꼽을 수 있으며 앞서 말한 「封建制에서 資本主義로의 移行」에 관한 論爭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M. Dobb, 高橋幸八郎, R. Hilton, C. Hill 등 이외에 日本의 大塚久雄教授²⁶⁾ 등이 있다.

資本主義의 發達の 基本線을 封建社會內部에 있어서의 農民層分解에 구하는 이 第2의 立場에도 論者에 따라 여러가지의 차이가 없는바 아니지만 이들의 主張을 가장 잘 浮刻시켜 提示한 사람으로서는 高橋幸八郎, 大塚久雄 兩教授를 들 수 있으므로 이들의 所論을 中心으로 그 基本線만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즉 封建制度는 단순히 商品貨幣經濟의 발전에 의하여 자본주의로 넘어오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商品貨幣經濟의 발전이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제조건을 준비한 것 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상품화폐경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歷史的 範疇로서의 資本主義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商品貨幣經濟는 말하자면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오래된 것으로 그것은 古代 「이집트」에도 있었고 「히랍」·「로오마」의 고대노예사회에도 있었고 封建社會에도 있었다.

물론 貨幣經濟와 營利主義精神은 資本主義社會에 들어옴으로써 전 사회의 지배적 原理로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量的으로 그 지배도가 더 강하다는 것 뿐이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사회를 그 이전의 社會와 명확하게 구분하는 표식은 되지 못한다. 歷史上的 실패를 들어본다 하더라도 예컨대 中世末의 東部獨逸에 있어서 보는 바와 같이 貨幣經濟의 발전이 오히려 領主의 農奴에 대한 封建的 壓迫을 加重시켜 거기에 「農場領主制」 Gutsherrschaft를 성립케 하여²⁷⁾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적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같은 史實은 商品貨幣經濟가 곧 資本主義성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기본적 立場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고있다.

資本主義社會의 기본적 특징은 ①직접생산자와 生産수단의 분리와 ②자유로운 인격의 소유자로서의 자유로운 임금노동의 상품화에 입각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의 역사적 基本線은 봉건사회 體內에서 발생한 中産的 生産者層(독립자영농민과 독립수공업자)의 발전과 그들의 경제적 향상을 토대로 하는 局地的市場圈의 형성, 이 안에서 中産的 生産者層의 兩極分解에서 구해져야 한다. 「스위치」의 비판자들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대체로 이상과 같은 것이다.

以上에서 보아온 바와같은 일련의 國際的 規模의 論爭에서 世界의 歷史學界 및 經濟學界의 共有의 財産이 되었던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4) Henri Pirenne, Les périodes de l'histoire sociale du capitalisme, *Bulletin de l'Académie Royale de Belgique* Classe de Lettres, 1914. [大塚久雄·中木康夫譯, 「資本主義發達の諸段階」, 未來社, 東京, 1955, pp. 5~58 (社會科學ゼミナール(1))]
- 25) E.A. Kosminsky, Studies in the Agrarian History of England in the Thirteenth Century, ed. by R.H. Hilton, Oxford, 1956.
- 26) 大塚久雄, 「歐洲經濟史序說」上卷, 日本評論社, 1944; 改訂版, 上の1, 2, 弘文堂, 1951~52.; 同 「近代資本主義の系譜」, 學生書房, 東京, 1947, 増訂版, 上の1, 弘文堂, 東京, 1951.; 同 「封建制より資本への移行—農業共同體との關連において—」, 「土地制度史學」Ⅲ, 1955.
- 27) 東部獨逸의 Gutsherrschaft에 관하여는 F. Mager, Geschichte des Bauertums und der Bodenkultur im Lande Mecklenburg, Berlin, 1955; R. Stein, Die Umwandlung der Agrarverfassung Ostpreussens durch die Reform des 19. Jahrhunderts, 3 Bde., Jena und Königsberg, 1918--1935; J. Ziekrush, Hundert Jahre schlesischen Agrargeschichte. Vom Hubertusburger Frieden bis zum Abschluss der Bauernbefreiung, Breslau, 1915.; Heinz Maybaum, Die Entstehung der Gutsherrschaft im nordwestlichen Mecklenburg, Stuttgart und Leipzig, 1926 등 참조.

첫째로, 이 論爭에 의하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資本主義의 發展過程과 그 概念·內容을 보다 科學的인 方法論에 의해서 밝혀보기 위한 세계의 여러학자들의 연구를 자극하였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가 日常使用하고 있는 資本主義의 概念은 흔히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그 내용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私有財産制度라고 보고 또 어떤 사람은 營利主義의 社會라고 보고 또 어떤 사람은 貨幣經濟가 극도로 발달된 社會라고 보고 있는데 資本主義를 歷史上 하나의 독특한 生産樣式으로 보고 그 특질을 究明해 본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商品貨幣經濟에 입각하면서 經濟的으로 말하자면 二重의 의미에 있어서 자유로운 ①生産手段으로 부터의 自由와 ②人格的 自由) 勞動力의 存在에서 求해져야 한다는 점이 보다 명백해졌다.

둘째로 이 論爭의 成果는 이러한 資本主義의 概念에 입각하여 그동안 歷史學界,乃至는 資本主義의 發展史研究의 分野에서 一般的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Brentano-Sweezy의 見解 即 商品貨幣經濟의 發展이 급기야는 資本主義를 成立시키는 基動力이 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철저한 반성의 機會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로, M. Dobb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論爭의 過程에서 한 나라의 封建制度로부터 資本主義로의 移行過程에 視野를 局限시켜서는 안되며 더 나아가서는 各國의 資本主義發展의 歷史의 特殊性을 相互 比較하여 거기에 유형적인 比較점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 졌다는 점이다. 이점은 특히 高橋幸八郎教授에 의해서 強調되었고 M. Dobb에 의해서 그 必要性이 認定되었던 것이다.

넷째로 이 논쟁의 過程에서 資本主義發展의 過程에 있어서의 前期의資本과 近代의産業資本의 對立關係, 都市工業과 農村工業의 對立關係, 農民과 封建勢力과의 對立關係가 決定的인 역할을 하였으며 封建의勢力과 이에 對抗하는 세력과의 對立關係에 있어서 前者가 商品生産의 過程을 위에서부터 파악해 들어갈 경우에는 거기에 封建制度의 온존에 입각하는 絕對主義의支配體制의 強韌한 지배 關係를 오랫동안 溫存시키게 되는데 대하여 封建制度에 對立되는 農民經濟가 商品貨幣經濟를 能動的으로 파악해 들어 감으로써 英國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밑으로 부터의 資本主義化의 過程이 進行된 경우에는 資本主義의 圓滑하고 급속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歷史的 發展의 유형적 差異가 보다 명백해졌다는 점이다.

다섯째로 封建制度의 資本主義로의 移行의 과도기에 있어서 나타났던 絕對主義王制의 性格이 보다 명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即 M. Dobb은 14~16 세기에 걸치는 英國의 절대왕제를 가르켜 封建의도 아니고 資本主義의도 아닌 (neither feudal nor yet capitalistic) 것이라고 規定한데 대하여 高橋幸八郎教授는 이時期가 根本的으로는 封建의인 支配體制였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M. Dobb도 이것을 결국 認定하게 되었다. 또한 Christopher Hill도 이 시기에 있어서는 하나의 階級的의 支配가 아니라 여러階級的의 支配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말한 P. Sweezy의 견해를 비판하고 이시기가 궁극적으로는 封建의인 支配體制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²⁷⁾. 이점은 14~16세기에 걸치는 이 時期에 있어서 貨幣經濟의 광범한 發展, 獨立自營農民層의 成立과 그兩極分解의 進展等에 對應하여 그러한 日蓮의 過程에 의해서 弱화된 封建의 支配體制를 강화하기 위하여 封建支配層은 絕對主義的王制를 成立시킴으로서 本質的으로는 封建의 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封建制度로부터 資本制度로의 移行過程에 나타나는 封建의 支配體制의 변질과정에 관한 유형적 파악을 可能하게 하였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獨逸이나 日本等の 後進資本主義에 있어서의 絕對王政

27) M. Dobb, The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A Symposium 참조.

의 性格究明에 대하여 科學의 단계 규명의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學問的 業績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위에서 본 바와같이 封建制度로부터 資本主義로의 移行過程에 관한 國際的規模의 論爭에서 얻어진 學問的 成果에 基礎하여

첫째, 서구라파 각국의 資本主義의 發展과정 을 영국, 불란서, 독일등에 관하여 비교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領主經濟와 農民經濟의 對抗관계가 어떻게 歸結되는가에 따라서 資本主義의 歷史的 發展유형이 根本적으로 左右된다는 점을 역사 구체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方法論的 基礎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그와같은 研究의 成果에 입각하여 日本과 그 支配下에서 近代化의 過程으로 들어갔던 韓國의 資本主義發展의 歷史的類型과 特質을 科學적으로 밝혀 볼 수 있는 方法論的 基礎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이 「論爭」의 現代의 實踐의 意義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III. 「前期的 資本」과 「近代的資本」

封建制로 부터 資本主義로의 移行을 둘러싼 國際的 論爭에서 얻어진 結論中에서도 가장 중요한 結論은 일반적으로 貨幣經濟의 발달이나 商業의 발달이라는 현상은 반드시 近代의 資本主義의 生産樣式에만 持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오히려 전적으로 商業이나 金融業에만 의거하여 利潤을 추구하는 商業資本(또는 商人資本)이나 高利貸資本의 營利活動은 어떤 의미에서는 奴隸制나 封建社會와 같이 生産樣式으로써의 資本主義의 발생 이전의 諸時代에 있어서 오히려 더욱 典型的으로 발전되며 그것은 말하자면 人類의 歷史와 더불어 오래된 성격의 資本으로써 產業資本의 運動을 主軸으로 하는 「近代的 資本」에 대하여 「前期的 資本」 또는 「資本의 大洪水以前的의 形態」 "die anteviluvianische Gestalten (od. die vorsintflutliche Form) des Kapitals"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이다.

즉 社會의 生産樣式의 世界史의 特殊段階으로써의 近代資本主義는 單純한 營利活動이나 貨幣經濟나 商業, 즉 廣義의 「資本」一般의 存在나 優勢에 의해서 特徵지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近代資本의 歷史의 特徵은 언제 어디서나 人間生活의 物質的基礎를 이루는 社會的 生産=再生産過程이 資本에 의해서 支配되어 資本의 價值增殖過程으로서 進行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資本이 社會의 生産과 再生産過程을 자유로운 商品流通의 關係=等價交換의 關係를 바탕으로하여 거의 全社會의 支配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成立되는 것이다.

이제 資本主義의 歷史의 特質을 要約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商品生産이 그 一般의 土臺가 되어있으며 商品流通은 前期的資本과 같이 生産의 外部에서 關係하는 것이 아니라 이 段階에 이르러 비로소 全社會의 生産과 再生産의 基礎가 된다는 것 ② 直接生産者가 生産手段으로 부터 分離되어 있다는것. ③ 直接生産者가 아무런 經濟外的 強制를 받음이 없이 自由로이 自己의 勞動力을 商品으로서 販賣할수있는 人格의 自主性과 自由를 가지고 있으나 直接生産者가 生産手段으로 부터 分離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自由로운 商品經濟의 바탕위에서 直接生産者인 賃金勞動者가 生産手段의 所有者인 資本家에 對하여 그의 唯一無二한 所有物인 勞動力을 商品으로써 販賣하지 않고서는 生活를 유지할 수 없다는 冷嚴한 「經濟的強制」가 直接生産者에게 加해지고 있다는것. ④ 生産手段의 所有者인 자본가에 대하여 營利追求의 自由가 보장되어 있다는것.

資本主義는 바로 위와 같은 諸要因을 바탕으로 하여 비로소 성립되는 歷史的으로 특수한 社會의 生産樣式인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產業資本의 自由로운 價值增殖을 위한 再生産過程이 社會의 物質的 生産의 기초가 되어 있는 특수한 生産樣式 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⁸⁾

近代資本主義以前에 있어서는 直接生産者=勞動主體는 所與의 生産樣式的 性格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生産手段을 스스로 소유하거나(小農 및 手工業者의 경우) 또는 그 자신이 生産要具의 一部分으로 나타남으로써(奴隸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勞動諸條件과 勞動主體가 對極적으로 分離하는 일은 없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거기서는 主要한 生産手段이 勞動生産物이 아니라 自然 그 자체이며 自然으로써의 土地의 占有내지 所有가 物質的生活의 基本的 前提로 되어 있으며, 土地所有者가(資本家가 아니다) 生産을 지배하고 直接生産者는 土地의 附屬物(農奴) 또는 生産手段의 附屬物(奴隸)로써 土地所有者에 의한 直接的인 「經濟外的 強制」에 의하여 그의 全剩餘勞動을 收取당하는 입장에 있다. 封建制度는 土地所有를 기초로 하여 編成된 前近代의 生産樣式的 最後의 段階였던 것이다.

이러한 資本主義 이전의 生産樣式에 있어서는 「資本」은 前近代性 내지 舊生産樣式에 寄生하면서 生産樣式的 성격과는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것은 商品·貨幣經濟의 一定程度的 발전이 있기만하면 어떠한 前近代의 生産樣式 밑에서도 商業資本 또는 高利貸資本이라는 形態로써 대개는 生産의 外部에서 그 前近代性에 寄生하거나 그것을 利用하거나, 그것과 結合되어 존재할 수 있었을 뿐 生産樣式을 창조하거나 規定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前期的 資本」이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資本의 近代의 形態」로부터 「範疇」적으로 峻別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近代資本主義의 系譜에 관하여 앞서 말한바 Brentano-Sweezy의 立場을 취하는 사람들은 歷史上 「前期的 資本」의 營利活動이 점차 확대되어 급기야는 生産部面을 그들이 파악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產業資本, 따라서 生産樣式으로써의 資本主義가 誕生한다고 말하면서 前期的資本과 近代의資本으로써의 產業資本 상호간에 말하자면 역사적인 연속의 관계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前期的資本의 內面에 이미 產業資本, 따라서 生産樣式으로써의 資本主義를 발생시킬 수 있는 起動力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史實은 이러한 理論의 假設의 정당성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 Max Weber도 자세히 지적한 바와 같이²⁹⁾ 近代以前의 여러 시대에 있어서의 前期的 資本은 그 活動이 매우 활발했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產業資本(따라서 生産樣式으로써의 資本主義)의 形成으로의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最近의 經濟史의 研究成果에 의하면 前期的資本이 產業資本의 直接的인 祖上이 아니라는 것은 점점 더 명백해져 가고 있다. 예컨대 古典古代의 奴隸制의 기초 위에서 발전한 商業資本이나 高利貸資本은 資本主義의 生産樣式을 성립시키기는 커녕 그와는 거꾸로 奴隸制度의 발전을 결과하고 노예제도의 붕괴와 더불어 古代商業 및 여기에 입각했던 資本의 존재 형태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古代로부터 中世로의 移行은 「貨幣經濟」로부터 「自然經濟」로의 復歸라는 현상을 나타냄으로써 人類의 經濟的 進化的

28) 拙稿, 「資本主義의 農業의 歷史의 特質」, 『東國大學校論文集』 第2輯, 社會科學編, 1965 참조.

29) Max Weber, Agrarverhältnisse im Altertum, in: Handwörterbuch der Staatswissenschaften, 3. Aufl., 1909, I, pp. 52~188; und in: do., Gesammelte Aufsätze zur Sozial- und Wirtschaftsgeschichte, pp. 1~288. [渡邊金一·弓削達譯, 『古代社會經濟史—古代農業事情』 東洋經濟新報社, 東京 1959]

과정을 自然經濟에서 貨幣經濟로의 발전이라는 基本圖式에 의해서 파악하려 했던 19世紀 독일 역사학파의 경제발전단계설과는 전혀 거꾸로의 과정을 밟았던 것이다.

또한 10世紀末以來의 H. Pirenne의 이론바 「商業의 復活」³⁰⁾을 기점으로 하는 봉건제도 아래서의 商業資本의 발전에 관해서 본다 하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다. 즉 이론바 「商業의 復活」이후 頂點에 도달한 상업적 변형은 賦役農奴制에 입각하는 古典的 封建的 土地所有制를 해체시켜 자본주의 발전에 歸結되느니 보다 오히려 東部 England의 대토지소유제, 西歐的 規模에 있어서는 때때로 해체과정에 있었던 賦役農奴制의 부활, 또는 領主直接經營의 再興이라는 封建的 反動 feudal reaction과 결합되었던 것이다³¹⁾.

그리고 14~15世紀에 있어서 農民層이 封建的 土地所有의 支配로 부터 獨立하려는 方向을 廣範하게 보였을 때에 勿論 그 程度와 規模는 各國의 歷史的 諸條件에 따라서 다르지만 商業資本은 國際商業의 衰退와 더불어 發展을 停止했을 뿐만 아니라 後退를 하지 않을수 없게 됐다는 것도 全 西歐的 規模에서 經濟史的으로 確認되는 事實이다.

또한 Columbus의 地理上의 發見에 의한 商業革命을 기점으로 해서 전개된 各國의 特徵的 動向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資本의 生活史의 開始를 告하는 巨大한 世界商業의 發展은 各國의 資本主義의 發展이라는 同一한 結果를 가져오지 못하고 서로 相異한 여러가지의 結果를 가져왔던 것이다. 가장 대조적인 경우는 英國과 東部獨逸의 경우일것이다. 英國에 있어서는 초기 資本主義가 전형적인 發展을 계시하는 17세기에는 近代市民 革命을 수행하였고 뒤이어 産業革命을 世界史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自生的으로 달성하여 資本主義의 古典的 型態가 조성되었다³²⁾. 이에 대하여 東部독일에서는 16세기를 轉기로 하여 수출무역의 눈부신 發展이 있었지만 그것은 勞動地代의 부활강화에 依한 領主制의 자기경향 이론바 再版農奴制로서의 「구즈헤르샤프트(Gutsherrschaft)」의 發展에 歸結되었다³³⁾. 또 작도를 달리해서 初期資本主義 時代를 장식하는 國際商業전쟁의 귀추를 본다 하더라도 매우 重要한 問題가 거기에 제시되고 있다. 즉 地理上의 발전의 主役으로서 새로운 世界商業의 최초의 重要한 담당자로 등장했던 「스페인」과 「폴류갈」은 資本主義의 生産을 自國에 發展 시키지 못한채 新興의 和蘭과 英國의 대두앞에서 점차 商業的인 霸權을 상실하고 또 國際的 仲介 商業에 입각하여 巨大한 富를 蓄積했던 和蘭도 毛織物 工業을 基礎로 해서 資本主義의 生産의 순조로운 發展을 이룩했던 英國에 依하여 그 변형을 박탈당하고 商業的인 霸權은 資本主義의 商業資本에 입각하는 英國에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던 것이다³⁴⁾. 이와 같이 商業的인 諸國民은 資本主義 生産양식 즉 産業資本의 發展과 더불어 하나하나 뒤이어 몰락하지 않을 수 없었던 事實을 注目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와 같은 西洋의 歷史的 事實이 가르키는데에 依하면 近代的 資本主義의 生産方式은 이를 위한 條件이 中世의 內部에서 成長했는데에서만 發展했다. 또 商業의 확장 및 새로운 世界市場의 創造가 舊生産方式의 後退와 資本主義의 生産 양식의 隆盛에 압도적인 影響을 끼쳤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꺼꾸로 이미 樹立된 資本主義의 生産양식의 기초위에서 일

30) Henri Pirenn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Medieval Europe, transl. by I.E. Clegg, London, 1936. [増田四郎 外 5人譯, 『中世ヨーロッパ經濟史』, 一條書店, 東京, 1956] Chap. I.

31) 東部獨逸의 Gutsherrschaft의 경우를 보라.

32) 英國資本主義의 自生的 發展에 관하여는 拙稿, 「資本主義의 農業의 歷史的 特質」 前掲: 高橋幸八郎 編著 『近代資本主義의 成立』, 東京大學出版會, 東京, 1950: 大塚久雄著, 『歐洲經濟史』, 弘文堂, 東京, 1956: Maurice Dobb, Studies in Development of Capitalism, 前掲 等 참조.

33) 大塚久雄著, 『歐洲經濟史序說』 日本評論社刊, 東京 1944年: 同著, 『近代資本主義의 系譜』 學生書房 1947, 増訂版, 上, 弘文堂 東京, 1951. 等 참조.

어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産業資本以前的 前期的 資本의 發展속에서 産業資本 즉 資本主義의 起源 또는 그 形成의 原動力을 발견하려고하는 여러가지 견해에 對해서는 광범한 反證을 보여 줄수가 있는데 우선은 위에서 말한 諸事實에서 만이라도 다음과같은 여러 命題가 導出될수 있을 것이다.

(1) 商業資本도 高利貸付資本도 주어진 생산양식을 利用할 뿐, 이것을 창조하는것이 아니며 外部에서 여기에 關係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그러한 商業이나 高利貸付에 그들의 營利의 기초를 두고 있는 商業資本이나 高利貸付資本은 前近代의 生産樣式을 止揚하려는 主體性을 발휘하느니 보다 오히려 前近代의 生産樣式과 利害를 같이하고 이것을 가능한 限 溫存시키려고 한다.

(2) 商業資本과 高利貸付資本을 포함한 前期的資本의 自立的 發展은 資本主義生産의 발전에 逆比例한다는 原則이 여러 歷史的인 史實을 貫徹하고 있으며 商業資本으로서의 資本의 自立的發展 —이것이 前期的資本의 根本의 特徵을 이루고 있다—은 資本主義生産 即 産業資本 그 自體의 未發展을 表示하며 産業資本 및 이를爲한 歷史的 諸條件의 發展에 對하여 궁극적으로 대항적인 關係에 있다.

(3) 그러한 前期的 商業資本과 高利貸付資本은 資本主義生産양식 以前の 舊生産樣式에 自己繁榮의 本來的 地盤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또 事實 世界史的 쇠기를 구획하는 資本主義의 本來的 形成과 發展의 過程에 있어서는 그것들은 몰락을 當하지 않을수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前近代의生産關係를 最大한 利用하면서 스스로 産業資本으로 轉身하려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産業資本에 追從되되어 自立的인 資本의 形態로부터 産業資本의 運動을 媒介함으로써 産業資本의 利潤의 一部를 분배받게 되는 派生的 形態로서의 近代的 商業資本으로 변신하였다.

(4) 封建의 土地所有와 本質적으로 利害關係를 같이하는 前期的 資本으로서의 商人資本 내지 高利貸付資本과 近代的 資本으로서의 産業資本내지 그 本來的 母體로서의 中産의 生産者層의 經濟가 對立하는 가운데 封建의 土地所有와 結付된 前期的 資本이 産業資本 내지 中産의 生産者層의 經濟를 左右하여 그 支配력을 強力하게 溫存시킬수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보통 「半封建의 地主制的 土地所有」를 成立시키는 것이 通例지만 産業資本 내지 그 母體로서의 中産의 生産者層의 經濟的 勢力이 封建의土地所有와 結付된 前期的 資本의 流動舞臺를 決定적으로 崩壞시켜 그것들을 自己의 勢力下에 흡수해 버릴 경우에는 그러한 半封建의 地主의土地所有는 급속하게 解體되어 거기에 資本主義的 生産關係의 全社會的 成立을 가져오는 革命的인 길이 設定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본다면 「封建」과 「近代」의 對立과 抗爭은 資本과 封建의土地所有 (및 前期的資本)의 對立과 抗爭이라고 볼수 있다. 또한 이것을 經濟學的 論理로서 表現한다면 「地代」範疇와 「利潤」範疇의 對立 抗爭이라고 할 수도 있다.

(5) 封建의土地所有와 前期的 資本이 그 體 내에서 發展되는 資本主義의 물결앞에 不可不 踰하지 않을수있게 되는 하나의 變型된 封建의支配 體制로서 半封建의 土地所有가 成立되는데 여기에서는 封建의 性格의 「地代」와 「前期的 利潤」은 서로 結付되고 相互轉換하는 性格을 가지며 半封建의 「地代」가 비록 貨幣經濟의 發展과 더불어 資本의 利潤追求의 좋은 對象으로 登場한다 하더라도 그 地代는 어디까지나 基本的으로는 封建의 性格의 「前期的 利潤」이며 近代的 産業資本의 本來的 「利潤」과는 範疇적으로 區別되어야 할 性質의 것이다. 이點을 明確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封建制로부터 資本主義로의 移行過程에서 나타나는 半封

14. 經濟學研究

建의 地主的 土地所有의 歷史의 性格을 파악하는데 있어 決定的으로 重要하다.

(6) 그러므로 本來의 資本인 產業資本과 明確하게 區別하여 前期의 資本이라는 歷史적으로 獨自의인 법주를 설정하고 그것과 近代의 產業資本과의 對立·抗爭의 關係를 明確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近代資本主義의 發達過程을 研究함에 있어 決定的으로 重要하며 그것은 事實上 理論的 出發點이며 기초를 이룬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7) 이와같이 近代資本主義社會에 들어오기 이전에 「資本」의 支配의인 形態였고 貨幣經濟를 담당하고 있었던 前期의 資本은 生産關係를 根本의으로 바꿀수 있는 힘이 없었음은 물론 오히려 그것은 舊來의 낡은 封建的 遺制에 依存하고 기생하고 그것을 溫存시키려는 反動的 傾向을 나타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生産樣式으로써의 資本主義를 積極적으로 創出할 수 있는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 敵對者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8) 우리는 資本主義의 系譜를 問題로 할 때 人間의 勞動生産物이 商品의 形態를 갖추고 있고 또 貨幣가 流通되고 있으며 商業이 發達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바로 「資本主義經濟」라고 단언해서는 안된다. 商品과 貨幣의 流通 商業의 發達은 資本主義經濟에 관하여 必要條件이기는 해도 充分條件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로마」史의 연구로 유명한 T. Mommsen이나 柏林大學의 古代史研究의 지도자 Edward Meyer나³⁴⁾ Vienna 大學의 저명한 中世經濟史家 Alfons Dopsch³⁵⁾와 같이 古代社會에 있어서의 商品貨幣經濟의 發展을 가리켜 막바로 資本主義라고 보는 견해에 찬성할수 없다. 또한 商業이나 金融業에 依한 利潤追求와 商品貨幣經濟를 資本主義라고 보는 Lujo Brentano나 R.H. Tawney³⁶⁾나 Paul Sweezy의 견해도 취할수 없다. 이미 상세히 고찰한 바와 같이 古代世界나 中世社會의 商業資本이나 營利資本등 이른바 前期的 資本은 本來의 意味에서의 資本 또는 資本의 近代的 基礎形態 Moderne Grundform des Kapitals로서의 產業資本과는 전혀 다른 規定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資本主義는 商品·貨幣經濟와 더불어 주어지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歷史의으로 特殊한 生産=社會關係이기 때문이다.

IV. 資本主義의 構造的特質과 概念

우리가 歷史의으로 特殊한 生産方式으로서의 資本主義의 構造的 特質을 科學的으로 究明하려 한다면 원칙적으로 商品이나 貨幣의 단순한 存在에서 資本主義의 成立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商品이 어떠한 歷史的으로 獨自의인 社會의 生産方法에 의하여 生産되고 있는가 또는 그 貨幣가 어떠한 社會的 再生産을 媒介하고 있는가 하는 말하자면 生産樣式

註) Maurice Dobb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商業資本은 이 移行過程에서 資本主義生産의 開拓者로서의 前進的인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發展을 저해는 制動役割을 하고, 封建支配階級과 경제적으로나 政治的으로 同盟하는 일이 많았다. 이것은 특히 商人 가운데서도 가장 富裕한 가장 特權의인 階層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은 封建的 特權이나 王室의 愛顧에 기대어 그들로부터 獨占權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高橋教授가 적절하게 말한 바와 같이 資本主義生産의 開拓者는 當時의 上層「부루쥬아지」안에서 찾아보아도 虛事이며, 「獨立自營의 農民階級과 中小規模의 手工業者, 특히 자기의 農場을 개선하고 가난한 이웃인 오두막살이들의 勞動力을 고용하고 있는『富農, 「Yeoman 農民層」 안에서 찾아내야 한다.』 Maurice Dobb, Studies in Development of Capitalism. 日本語版 序文에서 引用.

34) Edward Mayer,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des Altertums 1895, Kleine Schriften, Bd. I, 2. Anbl 1924, pp.79~168

35) Alfons Dopsch, Naturalwirtschaft und Geldwirtschaft in der Weltgeschichte, 1930.

36) R.H Tawney,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1926, 1937 : [出口勇藏, 越智武臣譯『宗教と資本主義の興隆』岩波文庫].

의 觀點에서 問題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一般的으로 生産樣式은 生産의 勞動力의 기초에 依하여 左右된다고 한다면 보다 本質的으로는 勞動主體의 社會의 存在形態를 問題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볼때 古代社會에서 流通되고있는 商品은 主로 奴 隸勞動의 生産物이며 그런意味에서 奴隸制的 商品이라고 할수있을 것이며 西歐의 中世 또 는 日本의 德川幕府體制나 韓國의 李朝封建社會에서는 商品은 農奴의 賦役勞動에 依한 生 産物 또는 現物貢納이 商品으로 轉換된 것이었으므로 農奴制商品이라고 할수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奴隸勞動에 依한 古代「로마」의 Latifundium經營 또는 近世 식민지의 Plantation, Plantagenwirtschaft와 農奴勞動에 依存하는 近世 東部獨逸의 農民의 賦役에 입각하는 地主直接經營에 依한 農場領主制 Gutsherrschaft, 또는 西歐 絕對王制下的 特權 ‘Manufacture’와 強制勞役場 이것들은 모두「市場을 위한 生産」내지「營利目的의 經營」 으로서 일핏보기에 資本主義와 흡사한 外觀을 가지고 있으나 勞動力의 社會的 再生産 그自 體는 近代資本主義社會의 賃金勞動의 경우와는 완전히 달라서 等價交換에 입각하는 商品 貨幣經濟에 의하여 媒介되어 있지않고 商品生産 및 流通은 不等價交換에 입각하여 外部로 부터 關係하고 있을뿐이므로 生産 또는 經營 그 自體의 기초는 奴隸制 또는 農奴制이며 資 本主義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同時に 自由롭고 獨立된 生産者이건 領主의 支配 밑에 있 는 農奴나 隸農이건 直接生産者가 法律上 또는 事實上 自己가 所有하는 生産手段(土地 原 料 勞動用具 등)을 가지고 또 個人的 勞動이 아니라 自己의 勞動 내지 家族의 勞動을 가 지고 商品을 生産하는 形態에 關係서 보면 直接生産者내지 勞動하는 사람은 生産手段의 事 實上의 所有者이며 따라서 그가 商品으로 내놓을 수 있는것은 그가 스스로 生産한 勞動의 生産物이지 資本主義生産에 있어서와 같이 그의 勞動力은 아니다. (勞動力의 商品化는 없다). 그가 生産手段의 所有者이며 그의 經濟的 行爲가 아직도 原則的으로는 家族勞動과 그 協業 에 입각하고 있는 限 그는 單純商品生産者 또는 小商品生産者이며 資本家도 아니고 勞動者 도 아니다. 이와같이 생각한다면 人間의 勞動生産物이 商品의 形態를 취하고 貨幣가 流通 하고 있다는 事實만으로는 資本主義의 存在를 云云할 수는 없다. 예컨대 封建社會의 內部 에서도 서로 社會의 性格을 달리하는「領主經濟에서의 交換의 發展」도 있었고「農民經濟에 서의 交換의 發展」도 있었기 때문이다³⁷⁾. 그것은 다같이 商品貨幣經濟이건 하였으나 여기 에 對應하는 勞動力의 存在形態는 明白히 다르며 서로 對立 하고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歷史的 範疇로서의 資本 또는 資本主義를 중래의 歷史家들이 하 였던바와 같이 商品·貨幣經濟로써 一般的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옳지못할 것이다. 그것들 은 歷史的生産樣式 내지는 특수한 經濟的 社會構成體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같은 두가지 點에 特別한 關心을 기울여 보지않으면 안된다. 첫째는 그 社會의 基本的 生産手段 및 그 生産手段에 依해서 生産되는 商品이 어떠한 社會的 階層에 依해서 把握 되는가 하는 問題이 고 둘째는 生産力의 直接的 擔當者이며 그 社會構成體의 基礎를 形成하는 勞動主體 即 勞動 力이 어떠한 方式로 스스로를 유지하며 再生産해 가는가 以上 두가지 點이다. 問題를 以 上和 같은 基本的인 視角에서 과고들여 整理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近代 資本主義의 社會에 있어서는 勞動主體와 勞動 再條件과의 統一은 解體되고 直接 生 産者는 生産手段으로 부터 分離 되어있다. 近代社會의 勞動者는 古代世界나 封建社會의 奴 隸 또는 農奴와 달리 身分의 法律的으로 自由롭지만 土地 其他의 生産手段으로 부터도 분

37) E.A. Kosminsky, *Services and Money Rents in the 13th Century*, *Economic History Review*, V, 1933. [參 玄龍譯, 『イギリス封建地代の展開』改訂 1960.]

離되어 있다는 意味에서 「自由」이다. 그는 生産手段을 가지고 있지않기 때문에 그가 商品에 轉化시킬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勞動力 이외의것은 아무것도 없다.

資本主義의 商品生産의 境遇에는 勞動者는 모든 人格의 束縛에서 解放된 自由로운 賃金勞動으로서 等價交換에 입각하는 商品形態를 가지고 存在하고 있지않으면 안된다. 實은 이러한 勞動力의 存在形態는 近代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만이 特徵의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資本이 本來의 資本이기 위해서는 勞動力이 人格의으로 自由로운 賃金勞動으로서 等價交換에 입각하는 商品形態로서 一般的으로 存在하고 資本의 構成的 계기로서 對象化되어 있지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生産手段과 生活資料는 直接生産者와 對立的인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경우에 資本과 賃金勞動과는 等價交換에 立脚하는 商品交換의 方式에 의하여 또는 그것을 매개로 하여 서로 對立되고 結合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產業資本을 資本의 近代的 基礎形態라고 부르고 어떠한 社會構成에 있어서도 商品 및 貨幣의 形態로서 存在하는 資本의 前期的形態로부터 區別하는 것은 그러한 生産方式이 近代世界에 있어서의 社會의 生産의 一般的 基本形態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勞動力을 商品으로써 消費함으로서 資本은 스스로를 유지하고 利潤을 實現하여 自己增殖의 過程을 進行시키는 것이다. 이제 이와같은 產業資本의 運動을 圖式化하여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G-W < \underset{A}{P^m} \dots P \dots W' - G'$$

여기서 G는 貨幣 Geld, W는 商品 Ware, P_m은 生産手段 Produktionsmittel, A는 勞動力 Arbeitskraft, P는 生産過程 Produktionsprozess, 各表記文字 위의 '는 처음의 것과 나타나는 것을 表示한다.

여기서 이 過程을 說明하면 一般的으로 資本家は 生産諸要素를 市場에서 等價를 지불함으로써 購買하여 生産을 수행한다. 그는 한편에서는 生産手段 (不變資本 C)을 商品市場에서 購入하고 또 한편에서는 勞動力(可變資本 V)을 勞動市場에서 購入하여 그것을 資本主義의 生産過程에서 結合시킨다. 이 생산과정에서 그가 市場에서 買入한 商品은 消費되는데 이 生産過程에서 나온 勞動生産物을 資本家は 自己의 商品으로서 市場에 내놓고 等價로 販賣하여 貨幣를 回收한다. 그리고 다시금 生産이 재개되어 여기에 再生産過程이 完結된다. 이와같이 資本의 再生産은 끊임없이 市場에서 等價交換에 의한 商品流通의 基礎위에서 商品交換의 方式에 依해서만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資本主義生産이 支配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社會에 있어서는 勞動力도 또한 等價交換에 입각하는 商品交換의 方式에 따라 유지되며 再生産된다. 近代의 資本主義社會의 勞動者는 土地 其他의 生産手段으로부터 分離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自己의 肉體와 生活를 유지하기 爲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唯一의 商品인 勞動力을 販賣하지 않으면 안된다. 即 그는 勞動力이라는 商品의 販賣者로서 勞動市場에 나타난다. 資本의 生産過程에서 나오는 勞動生産物은 그것이 비록 勞動者의 肉體 유지에 直接 必要한 生活資料라 하더라도 그가 그것을 直接 消費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生産手段의 所有者인 資本家の 所有에 속하는 商品으로서 商品市場에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노동자가 自己의 生活를 유지하기 爲해서는 그에게 지불된 勞賃收入을 가지고 商品市場에서 이것을 다시 사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또 사들임으로써 만이 비로소 이것을 消費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資本主義社會 아래서는 勞動者는 勞動力이라는 商品의 販賣者로서 그리고 또한 生活資料 商品의 구매者로서 끊임없이 市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이와같은 商品流通의

基礎위에서 그리고 商品交換의 方式에 媒介됨으로써 만이 自己의 肉體와 自己의 家族의 生活을 유지한다. 이와같은 方式에 의하여 노동력은 社會의 再生産되어 가는 것이다. 資本主義라고 불리우는 經濟기구는 극히 복잡한 유기적 構造體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歷史的인 生産樣式으로써 파악할 경우에는 이상과 같이 產業資本과 賃金勞動이 商品交換의 經濟方式을 매개로 하여 서로 對立되고 結合되는 社會構成體이며 近代市民社會은 基本的으로 그 構成員의 모두가 商品의 所有者로서 서로 一定한 自由로운關係를 맺고있는 社會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자에 있어서는 노동력이라는 商品의 所有者로서 等價交換에 입각하는 商品交換의 關係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資本과 賃金勞動과는 商品交換의 法則에 입각하여, 따라서 商品流通의 基礎위에서 서로關係를 가지며 스스로의 經濟의 內容을 規定해 간다. 그러나 資本主義 以前の 모든 諸形態에 있어서는 資本家가 아니라 土地所有가 他人의 剩餘勞動의 直接的인 收取者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地代는 歷史的으로 剩餘勞動의 一般의 形態로서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그 잉여노동의 領有는 資本家の 경우와 같이 商品交換에 의해서 매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 基礎를 이루는 것은 社會의 一部分의 다른部分에 대한 강제에 의한 支配이다.

資本主義에 先行하는 封建社會에 있어서는 領主와 農奴 또는 地主와 小作人의 關係 即 封建的 生産關係 또는 供給關係는 土地所有에 입각하고 있으며 商品交換의 經濟法則에 의해서 媒介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와같은 意味에서 그것은 直接的인 關係이며 그러한 土地所有는 또한 「經濟外的 強制」를 그의 속성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土地所有의 規範을 간략하게 共同體라고 말한다면 봉건사회는 共同體를 토대로 하여 그위에 서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것이다³⁸⁾.

封建社會에 있어서의 農民(農奴나 지 隸農)의 土地는 近代市民社會의 法律에서 보는바와 같은 排他的 獨占性은 주어져 있지않다. 그것은 自主的인 市民의 土地所有가 아니라 封建的 世襲的인 農民의 下級所有權 Untereigentum 나 지 農民의 土地保有 Tenure Paysanne, Bauernbesitz(所有가 아니라는 點에 注意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土地所有權이 領主의 上部所有權 Obereigentum과 農民의 下部所有權 Untereigentum의 두개로 分裂되고 對立되어 있다. 그리고 그 法律的 形態는 어떻던 간에 그 經濟的 內容에 관해서 보면 封建社會의 農民은 自己의 土地를 事實上 所有하고 있는 土地의 保有者로서 나타난다. 다시 말하자면 直接生産者인 農民은 가장 基本的 生産手段인 土地와 결부되어 存在 한다는 點에서 近代資本主義下의 노동자와 本質的으로 다르다. 따라서 資本主義에 先行하는 封建的 土地所有에 있어서는 直接生産者가 市場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의 勞動의 生産物의 一部이지 勞動力 그 자체는 아니다. 封建社會에 있어서는 商品으로 전환될 수 있는 部分 即 直接生産者인 農民의 手中에 自己의 生活에 必要한 部分과 剩餘部分 即 地代를 공제한 나머지 部分이 農民手中에 남게되는가, 아닌가는 封建地代의 強度(形態와 水準)에 달려있다. 이와같이 一定한 條件아래서는 農民이 商品生産과 交換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可能性이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基本的으로는 勞動力 그 自體의 再生産은 말하자면 現物經濟的으로 實現되는 것이며 近代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와 같이 商品交換의 關係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같이 直接生産者가 거의 모든 勞動諸條件을 意味하는 土地와 밀접하게 結合되어 있는 封建社會에 있어서는 封建地代만이 唯一한 剩餘勞動의 支配의 通例의 形態로서 나타나는 것이며 이 剩餘勞動의 生産物을 지배층인 領主가 받아들이는 方式도 등

38) 大塚久雄：共同體の 基礎理論 岩波書店，東京，1955. 참조

價交換에 입각하는 商品交換의 經濟法則에 매개됨이 없이 經濟外的強制나 土地所有의 共同體의 規範에 입각하는 土地所有에 의해서 直接的으로 實現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封建의 土地所有下에서는 等價交換에 입각하는 商品交換에 매개되지 않는 직접적인 支配와 所有 即 直接的인 강제관계 Bann und Zwang가 봉건적 生産過程을 規定하고 있다. 그것은 勞動過程과 同時に 地代形成過程을 規定하면서 封建의 土地所有의 再生産을 매개하고 있다. 이러한 強制는 그것이 農村共同體의 強制이건 「길드」 Guild, Zunft의 強制이건 또 더 나아가서는 領主制의 強制이건 土地所有의 規範으로서의 共同體 그 自體안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封建制度로부터 產業資本主義의 資本關係의 近代的 基礎形態가 形成되기 위해서는 이들 強制의 體系, 即 共同體의 體系의 解體가 必要한 條件이 된다. 다시 말하면 共同體 乃至는 土地所有의 規範이 支配하고 있는 封建社會, 다시 말하면 地代만이 剩餘勞動의 一般的 통례적 形態로서 나타나고 있는 封建的 土地所有下에서는 利潤의 範疇은 成立될 수 없다. 왜냐하면 封建地代가 利潤을 成立시킬 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封建地代가 貨幣經濟의 發展과 더불어 前期의 資本의 利潤追求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도 그것은 本來的 意味에 있어서의 範疇의 利潤은 아니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前期의 利潤 乃至 封建地代 그 자체일 수 밖에 없었다³⁹⁾.

一般的으로 勞動生産物이 서로 商品으로서 對立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自立的이고 서로 獨立된 私的勞動의 生産物일 경우에 비로소 可能한 것이며, 資本關係의 形成은 經濟外的 強制의 體系로부터 직접생산자를 해방시키고 그들을 獨立化 乃至 收買하는 것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經濟外的 강제는 그 自體 勞動生産性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直接生産者와 生産手段과의 結合을 前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經濟外的 강제 내지는 共同體의 解體過程은 同時に 剩餘勞動의 통례적 形態로서의 地代의 해체과정일 뿐 아니라 直接生産者로부터의 生産手段의 분리, 生産手段인 土地로부터 分離된 勞動力의

39) 李朝末의 韓國農業에 관한 金容燮教授의 一連의 史的 研究는 韓國에서 割目할만한 開拓者의 役割을 하였으나 李朝末에 있어서 이미 『人格의으로 自由롭고 雇傭主와는 身分上 對等』한 近代的 賃金勞動者의 雇傭에 입각하여 市場目的의 商業的農業에 종사하는 『資本家의 借地農에 가까운 존재로서』의 이른바 『經營型富農』이 『17세기 말 19세기 초에는 광범하게 形成되어』있었다고 主張함으로써 經濟學的 範疇에 대한 沒理解를 露呈하였다. 당시의 農業經營에 있어서 나타났던 이른바 賃金勞動은 결코 人格的으로 自由롭고 雇傭主와는 身分上 對等』한 近代的 性格의 賃金勞動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金容燮教授는 바로 그의 著書 안에서 이것을 立證하고 있다. 즉 『花嶺里稷員洞約節目』 第七條에는 다음과 같은 農作規則이 있다. 「農作規則이니 洞人小作田畝를 無相奪耕하고 雇價는 一洞이 開會酌定되되 時勢에 依호야 公平歸定後에는 雖節晚人難時라도 一二錢을 不得加給이고 披戶不農者가 本洞種耘之役을 磨勘前에는 他洞에 出雇을 一禁하고 雇夫가 雇價에 欺少호를 稱托하고 汗漫廢役者는 洞中에 接趾을 不許하고……云云.」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의 이른바 「雇傭勞動」은 共同體에 의한 經濟外的 強制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른바 「短期雇工」 즉 「머슴」도 李朝末葉까지에는 아직도 身分의 隷屬 關係를 농후하게 남겨놓고 있었다. 李朝末에 이른바 『經營型 富農』이 廣汎하게 존재하였다는 것도 깊이 檢討를 要하는 것이지만 그 보다는 『經營型 富農』 그 자체가 그 性格上 近代的 資本家的 性格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明確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 1970, 1971. 참조. (詳細는 本論文 IV. 참조)

39) 最近年에 韓國資本主義史研究分野에서 水準 높은 研究結果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 金俊輔教授는 『韓國資本主義史研究—三·一運動과 經濟史的 段階規定—』, 一潮閣, 서울, 1970. 및 『殖民地開發과 地代의 利潤化機構』, 高麗大學校 政經大學 『社會科學論集』, 서울, 1973.에서 三·一運動 이후 韓國의 寄生地主들이 地代를 利潤과 맞먹는 것으로 觀念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地代」範疇과 「利潤」範疇로 轉換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詳細는 後述) 이것 역시 「地代」範疇과 「利潤」範疇을 經濟學的으로 嚴密하게 區分하지 못하면서 나온 誤謬였다고 생각된다. 日帝下의 地代範疇은 그 農業生産基盤이 아직도 前資本主義의 性格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利潤」範疇로 轉化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前期의 利潤」으로 轉化된 것에 不過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詳細는 本論文 IV. 참조.)

創出過程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資本의 生成과 확립의 과정은 土地所有에 입각하는 共同體의 解體 및 소멸 即 農民層의 兩極分解의 과정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 論理가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封建社會란 이와같이 土地所有에 입각하는 經濟外的 強制를 매개로하여 成立되는 歷史的 社會構成體이며 近代資本主義란 產業資本의 운동에 매개되는 商品交換流通의 관계에 의해서 스스로를 再生産해가는 歷史的 社會的 構成體인 것이다. 封建社會에 있어서는 土地가 社會的 富의 基本形態로 되어 있으며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商品이 社會的 富의 基本形態로 되어있다. 그리고 그것이 各生産樣式的 經濟的 內容을 規定하고 있다. 봉건제도로부터 資本主義로의 移行過程은 각기 그 나라의 歷史的事情과 그 나라의 內部구조 여하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類型上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社會的 富의 基礎形態가 土地로부터 商品으로 이행되고 地代로부터 利潤으로 範疇的인 轉化를 하는 基本線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특별히 부연해 두어야 할 것은 農業經營 및 土地所有의 形態와 性格이 近代的 資本家の인가 또는 封建的인가 하는 것을 어떠한 基準下에서 區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점에 관해서는 19세기의 歷史家들은 土地所有 乃至 農業經濟의 規模의 大小, 또는 分散과 集中 그 自體속에 求하고 있으며 많은 經濟史家들, 그중에서도 Hildebrand와 같은 사람은 農業 또는 土地所有가 現物經濟이나 또는 貨幣經濟이나에 따라서 資本家的이나 封建主義的이나를 區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Sombart, Brentano 및 Pirenne 등은 利潤追求를 위한 營利精神 乃至 이른바 資本主義의 精神 kapitalistischer Geist의 有無가 그러한 區分에 基準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P. Sweezy는 市場을 위한 生産 乃至 商業的 農業이나 아니나 하는 점이 그 農業이 資本主義的이나 封建主義的이나 하는 基準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見解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그 農業이 資本主義的이나 封建主義的이나를 區分하는 基準은 그 土地所有가 스스로를 經濟的으로 實現하는 生産方法의 社會的 性格 그 生産樣式的 歷史的 性格안에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生産樣式的 基礎에 있는 勞動主體 即 勞動力的 社會的 存在形態 乃至는 勞動力的 社會的 再生産方式에 의해서 決定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의 經濟史家들은 農業生産物이나 土地가 매매되고 商品化된 경우에는 農業의 資本主義化 乃至 土地所有의 近代化 또는 近代的 土地所有가 成立된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러한 見解에 賛成할 수가 없다. 土地의 商品化 乃至는 人間勞動 生産物의 貨幣化라는 條件만으로서서는 아직도 이것을 資本主義生産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것만으로는 그러한 土地所有가 近代的 土地所有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人間の 勞動生産物이 商品化되고 貨幣化된다는 것 다시말하면 商品 貨幣流通이 存在한다는 것은 모든 社會構成에 一般的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다. 農業에 있어서 封建的 生産關係가 支配的이었던 李朝末葉의 韓國에 있어서도 방대한 量의 쌀이 商品化되어 全國에 流通되고 있으며 구라파 중세기에 있어서도 土地의 사실상의 매매가 빈번히 일어나고 거기에 地主的 土地集中이 進行되어 갔다. 그러나 이때에 商品으로 流通된 쌀의 압도적 大部分은 封建領主 乃至는 地主가 封建的 隸農으로부터 수취한 小作米 即 封建地代로서의 生産物地代가 商品化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封建的 生産關係의 所産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直接生産者인 農民이 스스로의 勞動生産物인 쌀을 商品으로 轉化한 것도 아니며 더구나 農業資本家가 賃金勞動을 雇傭하여 生産한 쌀을 市場에 내놓고 商品으로 轉化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農奴制商品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資本主

義의 農業의 商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問題는 이러한 商品流通이 外延의으로 확대되면 될수록 그에 따라서는 封建의 地主의 農民에 대한 封建地代는 強化되고 그 強化에 比例해서 直接生産者인 農民이 獨占의인 商品生産者로 成立되고 상승해 가는 條件이 배제되고 이에 따라서 農民層의 資本과 賃金勞動으로의 兩極分解도 지지되고 產業資本을 위한 內部市場의 形成과 本來的 資本主義的 發展의 方向이 억제된다는 結果가 되었으며 따라서 領主의 地主의 商品流通의 확장은 封建의 土地所有를 解體시키느니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유지 또는 강화하고 再編成하게 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古代「로마」의 「라티퐁디움」 Latifundium 經營 또는 近世 東部獨逸의 Gutsherrschaft 또 데는 「윙커」 Yunker 경영 또 近世植民地에 있어서의 Plantation 등은 모두가 大農經營 또는 商業的 大規模農業 乃至는 市場을 위한 生産이기는 하지만 노예노동 또는 農민의 賦役勞動(勞動地代)를 기초로하고 그러한 生産關係위에 서있는 體制로서 그것은 資本主義的 生産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앞서도 累次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그러한 經濟을 基盤으로 하는 大土地所有는 近代的 土地所有가 아니라 古代的 또는 封建的 土地所有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近代的 土地所有를 위한 基本的 條件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며 土地所有의 近代的 形態를 위한 前提로서의 資本 또는 資本關係는 商品貨幣經濟 乃至는 市場을 위한 生産이 存在한다고 해서 存立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本來的 意味에 있어서의 資本主義는 人間의 勞動生産物뿐이 아니라 勞動力 그 自體가 또한 商品으로 되는 그러한 단계에 있어서의 商品貨幣經濟이므로 近代的土地所有 또는 土地所有의 近代的形態가 成立되기 위해서는 前資本主義的 社會에서와는 전혀 다른 勞動力의 社會의 存在形態가 前提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勞動力이 經濟外的 強制로부터 解放되어 人格의인 自由를 가지고 自由로운 勞動市場에서 生産手段과 分離된 가운데 그 자체 自由로운 商品으로서 나타나게될 때 비로써 그것은 資本主義的 農業이라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資本主義的 農業은 農民層의 兩極으로의 分解라는 歷史的 過程속에서 創出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方法論의 立場에 서지 않고서는 資本主義的 農業의 本質을 정확하게 理解할 수 없는 것이다.

V. 農民經濟와 領主經濟의 對抗과 資本主義發展의 類型的差異

그런데 一般的으로 封建制度로부터 資本制度로의 移行過程에 있어서 各國이 보이는 類型上的 差異點은 商品貨幣經濟에 대한 農民經濟의 대응형태의 차이에 의해서 크게 左右되고 있다는 점은 서구사과의 歷史에서 뚜렷이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卽 貨幣經濟의 發展이 봉건체제 안에서 나타나는 農民經濟의 向上과 그들의 經濟的餘剩의 蓄積에 입각하여 추진되고 農民經濟가 貨幣經濟를 밑으로부터 파악하여 말하자면 農民經濟의 主導下에서 商品貨幣經濟가 發展되어 갈 경우에는 거기에 獨立自營農民과 手工業者를 中心으로 하는 中産的生産者層을 創出하여 이들 半農半工의 小商品 生産者들의 經濟的 向上으로 말미암은 國內市場의 확대가 급속한 中産적 生産者層의 兩極分解의 過程을 가져오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資本主義를 보다 급속하게 또 圓滑하게 발전시키고 추진시키는 根本이 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貨幣經濟의 發展이 領主의 主導下에서 말하자면 領主가 위로부터 화폐경제를 파악해 갈 경우에는 封建制度의 解體가 아니라 오히려 그 強化를 가져오고 거기에 일단 生産物地代乃至는 金納地代로까지 해체되어갔던 封建制度를 역전시켜 農民의 賦役(勞動地代)을 強化하는 封建的 반동을 일으킴으로서 封建制度가 資本主義的

要素를 물리치고 오히려 더 강화되거나 오랫동안 溫存되는 結果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封建制度로부터 資本主義로의 移行의 類型上的 差異를 規制하는 것이 영국경제와 農民經濟와의 對抗의 關係였다는 사실은 여러가지 역사상의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우선 英國에 있어서는 貨幣經濟의 發展에 따라서 封建制度가 가장 빨리, 손쉽게 解體되어 갔던 것은 農民의 힘이 比較的 약했던 北部와 西部의 「잉글랜드」에 支配의이었던 非莊園 土地所有에 있어서였으며 領主의 封建의 支配력이 보다 強했던 西南 「잉글랜드」에 있어서는 貨幣地代의 成立이 아니라 商品貨幣經濟의 發展이 金納地代의 成立으로 이끌어 가지 않고 오히려 賦役의 強化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⁴⁰⁾. 그리하여 英國農業의 近代化의 過程은 農民經濟가 領主經濟에 비해서 보다 強力한 힘을 기를 수 있었던 北部 및 西部 「잉글랜드」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領主經濟와 農民經濟와의 對抗關係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勢力이 強했느냐 하는 것이 그후의 資本主義 發展의 類型과 速度를 規定했다고 하는 사실은 비단 英國의 두 地域의 比較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英國, 佛蘭서, 獨逸, 日本 그리고 韓國의 資本主義發展의 類型上的 差異를 比較해 보더라도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即 農民의 힘이 強하여 封建制度를 農民의 主導下에서 붕괴시켜 가면서 가장 일찍이 圓滑하게 貨幣地代를 굳혀갔던 英國에 있어서는 이미 16세기에 Enclosure가 進行됨으로서 農業의 資本主義化의 過程을 개시하였고 佛蘭서 역시 地方에 따라서 差異는 있지만 農民經濟와 領主經濟의 對抗의 關係에서 當時의 農業構造의 類型이 規定되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다. 또한 獨逸이 다른 資本主義國家에 비해서 언제나 後進을 면치 못하게 된 그 이유는 農民經濟의 힘이 강하지 못하고 領主經濟 Gutsherrschaft가 商品貨幣經濟를 포섭해 가는 過程에서 封建의 反動이 일어나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強力한 賦役勞動에 입각하는 Gutsherrschaft를 成立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점은 앞으로 展開될 各國의 資本主義發展의 類型上的 比較經濟史의 研究⁴¹⁾에 있어서 보다 仔細하게 밝혀지겠지만 領主經濟와 農民經濟의 勢力關係에 依해서 各國의 資本主義의 發展의 類型과 速度가 規定되었다고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사실로서 資本主義의 發展過程과 各國의 類型上的 比較를 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重要な 要點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사실 이와같은 見地에 입각하지 않고서는 같은 商品貨幣經濟의 發展이 어찌하여 어떤 나라에 있어서는 封建制度의 급속하고 철저한 解體와 資本主義의 生産樣式의 成立을 가져왔으며 또 어떤 나라에 있어서는 거꾸로 商品貨幣經濟의 發展이 오히려 舊來의 封建制度가 새로운 기초위에서 再編成되어 거기에 「封建의 反動」 feudal reaction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封建制度和 資本主義와의 形態에 입각하는 이른바 半封建의 制度를 오랫동안 잔존시켜 가는가 하는 점을 充分히 說明해줄 수 없는 것이다. 서구나라의 歷史에 비추어 볼 때 英國의 資本主義의 發展이 가장 일찍 또는 가장 급속하게 또 철저하게 이룩되었던 것은 封建의 土地所有와 農民經濟의 對抗過程에서 農民經濟가 封建의 土地所有를 압도하고 거기에 일찍이 獨立自營農民과 手工業者를 중심으로 하는 半農半工의 富裕한 農民經濟를 創出함으로서 거기에 광범한 局地的 市場圈을 形成하고 그것을 基盤으로하여 自由로운 農民層의 兩

40) Maurice Dobb,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pp.34~42, 51~59. 참조.

41) 各國資本主義의 發展에 관한 類型上的 比較經濟史의 研究는 이미 완료되어 不遑聞 本論文을 收錄하여 單行本으로 發刊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선은 拙稿, 「農業資本主義化의 諸類型」, 前掲 참조.

極分解의 過程을 거쳐 순조롭게 資本主義化의 길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불란서의 경우는 封建의 土地所有와 農民經濟의 對立抗爭의 過程에서 封建의 土地所有의 勢力이 英國보다는 훨씬 強力하고 지속적으로 그 支配力을 발휘하여 1789년의 불란서大革命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그 支配權이 흔들리지 않고 급기야는 革命的 과정에서 封建의 土地所有와 農民關係는 決定的인 對決을 보게 되고 農民經濟가 이러한 革命的 過程에서 승리함으로써 비로서 本格的인 資本主義化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獨逸에 있어서는 農民經濟가 아니라 領主經濟의 主導下에서 商品貨幣經濟가 發展하고 農民經濟는 그러한 貨幣經濟의 發展으로부터 소외되는 가운데 封建의 領主들에 의한 위로부터의 改革이⁴²⁾ 封建支配層의 利害關係를 끝까지 보완해 가는 가운데 이룩되어 結果的으로 封建의 關係가 오래도록 잔존되는 結果를 가져왔고 그 後에 獨逸의 後進性을 規定하는 決定的 계기가 되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獨逸의 資本主義의 後進性은 더 나아가서는 광범한 農民經濟의 빈곤으로 말미암은 國內市場의 협소로 그들을 對外的 침략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그것이 經濟의 軍事化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 그러한 基礎위에서 獨逸의 資本主義가 다른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 앞서서 獨占資本主義를 成立시키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獨占資本의 利害關係를 옹호하기 위한 第一次 및 第二次 世界大戰의 原因이 되었었던 것이다⁴³⁾. 이와같은 獨逸의 類型은 日本의 資本主義의 發展의 過程과 일맥상통하는 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獨逸과 日本의 이러한 유사성은 따져놓고 보면 그 歷史的 原因은 封建의 土地所有와 農民經濟와의 對抗關係에 있어서 農民經濟가 領主經濟에 依하여 소외되는 가운데 領主經濟 主導下의 商品貨幣經濟의 發展이 그 나라들의 近代化의 過程을 이끌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近代化의 過程을 規定하는 封建의 土地所有와 農民經濟의 對抗의 관계는 또한 韓國의 經濟發展過程을 研究함에 있어서도 決定的으로 重要的 意味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李朝 末葉의 격동기에 있어서 東學農民革命은 李朝의 封建의 支配體制를 철저하게 분쇄하여 거기에 農民經濟가 主導하는 새로운 經濟構造를 創出할 수 있는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었던 것이며⁴⁴⁾ 萬一 그것이 성공하였다면 韓國의 그 後의 歷史的 發展過程도 決定的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불행히도 韓國은 그러한 동학혁명에 의한 農民經濟의 發展의 可能性이 軍事的 封建의 帝國主義로서의 日本 帝國主義에 의하여 분쇄되고 거기에 그들 本國의 半封建의 土地所有가 導入되었고 그것이 韓國의 오늘날의 農業經濟의 構造的 基礎에 歷史的인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資本主義의 發展過程에 있어서 封建의 土地所有와 農民經濟의 對立關係에서 어느쪽이 더 得勢하느냐 하는 관계가 비단 經濟的 局面에 그치지

42) 이 改革은 Die Stein-Haldenbergische Reform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한 것. 大塚久雄外 2人編著, 『西洋經濟史講座』, 岩波書店, 1960, IV-15 所收, 北條 功, 「東ドイツにおける農民解放」; G.F. Knapp, Die Bauernbefreiung und der Ursprung der Landarbeiter in den älteren Theilen Preussens, 2 Bde., 1887; Johannes Ziekrusch, Hundert Jahre schlesischer Agrargeschichte, Breslau, 1915. 등

43) 이 점에 관하여는 拙稿, 『農業資本主義化의 諸類型』, 『東國大學校 論文集, 社會科學編』第5輯所收: 山田盛太郎, 『日本資本主義分析』, 岩波書店, 東京, 1952. 改版; 大內 力著, 『日本經濟論』, 東京大學出版會, 東京, 1952 등 참조.

44) 東學農民革命에 관하여는 崔虎鎮著, 『韓國經濟史概論』, 普文閣, 서울, 1962; 文教部 國史編纂委員會, 『東學亂記錄』(上·下), 韓國史料叢書 第10, 서울, 1959; 金岸基, 『東學과 東學亂』, 大成出版社, 서울, 1947; 金容燮 稿, 「全瑣事供草의 分析—東學亂의 性格一斑」, 史學, 研究第2號 서울: 崔泰鎭, 「甲午東學亂의 經濟史的 意義」, 上·下, 中央大學校 經商大學, 『經濟學論集』, 第2卷, 第1~2號,

않고 더 나아가서는 政治的, 社會的, 文化的 構造까지를 規定하는 決定的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아무리 強調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같은 점을 認識함으로써 우리는 資本主義의 各 發展단계에 따르는 經濟構造의 本質的 側面과 그 概念內容을 보다 明白하게 整理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같은 認識은 오늘날 韓國農業의 近代化 더 나아가서는 經濟發展을 위한 戰略的 手段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重要的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農業을 基盤으로 하지 않고 農民經濟의 自立的 발전을 基礎로 하지 않는 經濟發展은 그 自體의 基本的인 構造의 脆弱性으로 말미암아 經濟의 지속적 高度成長으로 이끌어 갈 수 없다는 歷史的인 教訓은 日本의 경우를 보더라도 明日한바 있다. 農民經濟의 쇠퇴에 입각하는 經濟發展 方式을 추구했던 日本에 있어서는 第二次 世界大戰의 終末 以前까지 農業의 後進性을 탈피하지 못하고 農民經濟의 貧困이 全國經濟의 빈곤을 規定하였고 그로 말미암은 國內市場의 협소화가 經濟의 軍事化와 침략화를 가져옴으로서 結局 敗亡의 길을 걸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第二次世界大戰의 폐허에서 일어난 日本은 政治·經濟의 民主化過程과 農地改革의 成功的 달성에 입각하는 農民經濟의 向上을 바탕으로 國內市場의 深化와 확대의 계기를 잡게 되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日本經濟는 새로운 成熟단계로 돌입하여 갔던 것이다. 이와같은 教訓은 農民經濟의 確立과 發展없이 經濟의 近代化와 순조로운 발전이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점에서 歷史的 事實은 現實속에 살아있으며 現實의 認識은 歷史속에서 가장 올바른 認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歷史는 現實이며 現實은 또한 歷史이기도 한 것이다.

The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A Methodological Consideration for the Historical Analysis
of the Agricultural Structure in Korea—

Chong-Hwan Chu

Professor of Agricultural Economics
Dongguk University

When we study the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there seem to be two different models of transition.

The one was the case when the peasantry, undermining the feudal system dominated by the feudal rulers, pushes forward the money economy under their leadership. In this case, the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had been realized in the smooth way on the basis of the rapid process of selfgrowing capitalistic dissolution of peasantry into two extreme classes, which in turn pushes forward the development of local markets based on the growth of the peasant economy. This model of transition was seen in the cases of England,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and may be called as the courses of capitalization from the below(Von Unten)

On the other hand, there seem to be another different model of transition, where the feudal ruling classes, not only oppressing the possibilities of the development of the "embryon of profit" and the development of money economy under the leadership of the peasantry, but also preserving the interests of the feudal ruling classes, had established the semi-feudal and semi-serfdom ruling systems as a reorganized feudal systems, which arouse as a product of a compromise between feudalism and capitalism. This model was seen in the cases of Prussia, Japan and Korea in the course of the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Under this model, the system of outer economic compulsion of semi-feudal and semi-serfdom-like nature prevailed in the agricultural sector for a long period. and became the basis of the structure of the reproduction of capital, supported by the state power of the absolutism (in the cases of Germany and Japan) or Colonialism (in the case of Korea). Consequently, the poverty of the peasants, who were occupying the absolute majority of population, resulted in a vicious circle of whole nation's poverty by pulling down the industrial labourer's wage level by their poverty. This vicious circle of poverty shut down the possibility

of domestic solution of the economic contradictions due to the narrow range of domestic market. The countries belonging to this model had no other way of solution of the vicious circle of the contradictions but to resort to the militarization of their national economies, to invasion to foreign lands or to unreasonable expansion of markets towards overseas, led by the autocratic, monopolistic financial capital of pre-capitalistic nature.

As a matter of fact, whether the peasant economy could enhance the money economy under their leadership by overriding the economies of the feudal ruling classes, or adversely the economy of the feudal ruling classes grasps the economy of the peasantry from upper side and oppresses the possibilities of the self-growing development of the peasant economy under the reorganized feudal ruling system, virtually seems to have destined the relevant country to follow which model among the above two different models in the process of the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This thesis is to testify the validity of the above theoretical hypothesis on the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In so doing, this thesis is divided into the following 3 parts.

1) To evaluate the results of the so-called Sweezy-Dobb controversies on the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which were debated in a world-wide level after the World War II.

2) On the basis of the evaluation of the controversies, to establish a methodology of scientific economics to pull out models of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an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riterion of "Rent" and that of 'Profit' as well as between criterion of "pre-capitalistic capital" and that of modern industrial capital.

